논어 15편 위령공 21장 · 원문·풀이

子曰：「君子矜而不爭，群而不黨。」

독음 · 자왈 군자긍이부쟁 군이부당

쉬운 풀이(요약) · 군자는 자존감을 지키되 다투지 않고, 여럿과 어울리되 편을 가르지 않는다.

AI가 원문을 대조해 작성한 학습용 요약입니다. 해석이 갈리는 구절은 다른 풀이도 있습니다.

글자 뜻과 음(대표 훈음 · 문맥별 독음은 위 본문 참고)

子 아들 자 / 曰 가로 왈 / 君 임금 군 / 矜 불쌍히 여길 긍 긍

而 말이을 이 / 不 아닐 불 / 爭 다툴 쟁 쟁 / 群 무리 군 군

黨 무리 당 당

저본: 위키문헌 論語 · 편별 고정 판본과 전체 교정 기록은 출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.